

본덴의 역사와 유래

요코테에서 본덴을 축제용 도구로 만들어 선보이는 역사는 300년 이상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이 행사는 신도(일본 전통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본덴은 신령이 지상에 강림했을 때 그 넋을 품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본덴에는 길이 약 4m의 목제 작대기에 고헤이(흰 종이로 만든 장식이 달린 신장대) 등 다양한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신도의 의식에 사용되는 도구였던 본덴

역사 자료에 따르면 본덴의 기원은 신도의 의식에 활용하는 ‘헤이소쿠’라는 도구입니다. 헤이소쿠는 ‘보데’라고도 불리며, 신도에 뿌리를 두고 산악신앙과 불교가 융합된 슈겐도(修驗道)의 수행자들이 ‘보데’와 수호신인 ‘대범천왕(大梵天王, 일본어로 다이본텐오)’을 연관 짓기 위해 ‘본덴’이라고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본덴은 이러한 기원이 된 헤이소쿠보다 훨씬 정교한 장식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아사히오카야마 신사에 봉납하는 풍습은 1845년에 8대 요코테 성주인 도무라 주다유(1818~1880년)가 음력 1월 16일에 시행한 마키가리(공동으로 진행하는 물이 사냥)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마키가리 행렬에는 많은 소방대가 참가했고, 성에 돌아오는 길에 아사히오카야마 신사에 들러 이 땅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기원했다고 합니다. 소방대들은 화재가 난 장소에 동료들을 불러 모으는 표식으로 사용하던 ‘마토이’라고 불리는 표식 도구를 마키가리를 할 때도 들고 갔습니다. 마토이는 긴 막대기 끝에 좁고 긴 천을 매단 것으로 헤이소쿠보다 크지만 모양은 아주 비슷합니다. 신사에서 기도할 때 소방대들은 문 앞에 마토이를 높이 내걸었습니다. 요코테의 눈 축제에서 사용되는 거대한 본덴은 150년 이상 전에 소방대들이 마키가리에서 사용한 마토이의 모양과 크기를 따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본덴 콩쿠르를 개최하는 날은 과거에 마키가리를 하던 날과 같습니다.

눈 축제의 본덴

눈 축제의 본덴 콩쿠르에서 선보이는 본덴 디자인은 다양하며, 하나하나가 각 마을이나 사업소를 대표합니다. 불탑이나 제단, 그 해의 간지 등 전통적인 디자인을 활용하는 그룹도 있고, 스포츠 경기의 마스코트 등 현대적인 디자인을 모티브로 도입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무엇을 모티브로 하였든 축제에 참가하는 본덴을 만들 때는 모양과 크기, 구성 등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먼저 작대기 길이는 4m로 정해져 있습니다. 작대기 끝에는 지름 90cm의 대나무 바구니를 달고, 길이 270cm에 달하는 단자쿠(소원 등을 적는 종이) 모양의 천 ‘사가리’를 늘어뜨립니다. 그다음 ‘헤이소쿠’의 ‘시데(지그재그 모양의 종이 장식)’를 장식하고 ‘하치마키(머리띠)’를 들러 감습니다. 본덴의 가장 위에는 화려한 장식인 ‘머리 장식’을 다는데, 이는 밑면 120cm 이하, 높이 150cm 이하여야 합니다. 1900년 전후에는 머리 장식에 대부분 대나무나 철사, 천 등을 사용했으나

지금은 스티로폼과 같은 가벼운 소재를 사용한 것도 있어 더욱 정교하게 디자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